

공수처장 후보 '현미경 검증' 시작

추천위 '정치적 중립성' 초점 과거 발언·행적 등 수집 내일 회의 "공수처는 괴물" 발언 석동현·공수처 자문위 활동 최윤식 비토 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들이 공개되면서 검증 작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은 첫 회의를 이틀 앞둔 11일 추천된 후보들에 대한 평판 등 기초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각 후보의 과거 발언이나 행적이 공수처장으로서 지켜야 할 '중립성'에 어긋나지 않는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인물은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석동현 변호사다. 석 변호사는 후보 명단이 공개된 10일 페이스북에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기관으로 본다"며 "폐지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될 이상 어떻게든 공수처가 괴물이 되지는 않게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후보직을) 수락했다"고 밝혀 논란을 자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밖에도 석 변호사가 지난 총선에서 야당 공천을 신청했던 정치인인데다, 그간 말아 온 사건으로 미뤄 봐도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며 '비토'를 예고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광복절 집회 당사자들을 변호하고, 개표 부정을 주장하는 민경욱 의원을 변론하고 계신다"며 "공수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전혀 지킬 수 없는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측이 추천한 전종민 변호사가 정치적으로 여당에 편향돼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전 변호사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사건 변호인 중 한명이라는 점도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다만 민주당 측은 전 변호사가 실제로 최 대표를 변호한 것은 아니고, 로펌의 대표로서 이름만을 올린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최윤식 변호사는 공수처 설립준비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과격'한 주장을 내놓은 바 있어 국민의힘 측에서 거부감을 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 변호사는 준비단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공수처법을 개정해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보 확보 등 공수처의 권한

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강찬우 변호사는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의 교비 횡령 사건 수사 당시 수원지검장이었다는 점이 검증 과정에서 거론될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참여연대와 민변 등은 "검찰이 이전 총장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비호한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추천위 내부에서는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다수 추천돼 검증이 쉽지 않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실제로 하마평의 단골이던 이광범·이용구 변호사나 김진국 감사위원 등이 빠졌고 후보 중 '중량감 있는 인사'가 많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

한 추천위원은 "일부 후보는 평판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부터 수소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천위는 12일까지 실무 지원단으로부터 후보자들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은 뒤 13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마라톤 회의'를 벌일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윤곽'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 의결이 가능한 논의 구조상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윤석열, 대권 여론조사 '깜짝 1위'

한길리서치 조사 24.7%...이낙연 22.2%·이재명 18.4%

차기 대권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차기주자 지도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1위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다.

11일 발표된 한길리서치 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차기 대권 주자 지지도는 윤 총장(24.7%), 이 대표(22.2%), 이 지사(18.4%) 순이었다. 여론 양강 주자의 지지율이 20% 안팎 박스권에서 정체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윤 총장이 급부상하면서 '3자 구도'가 굳어지는 흐름이다.

윤 총장은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로 추미에 법무 장관 등 여론 인사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존재감을 키웠다. 특히 작심 발언을 쏟아낸 지난달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지지율이 급등했다. 여론의 '윤석열 때리기'가 도리어 윤 총장의 지지율을 끌어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차기 대선이 1년 넘게 남았지만, '윤석열 급부상'을 바라보는 여론의 속내는 복잡하다. 윤 총장의 지지율 1위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평가절하하는 분위기가.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아군이 대안주자를 찾지 못해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견고하지 않은 지지율여서 신기루 같이 금방 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윤석열 현상'의 이면에, 여론 주자들의 '박스권 정체'가 깔려있다는 점은 민주당으로서도 무척 고민스러운 지점이다. '친문(친문재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2심 유죄 판결로 대권 레이스 참여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당은 친문 진영을 중심으로 제3, 4 후보의 등장 가능성도 주시하는 분위기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경우 최근 지방 방문과 여야 의원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다. 사실상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야권 후보로도 분류되는 윤 총장의 상승세를 두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분위기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 주자가 아니라는 점이 딜레마이자 리스크다. 야권 지지층에서 갈수록 힘을 받는 윤석열 대명사는 새 인물과 정권 탈환을 고대하는 보수층의 갈등에 당이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으로도 볼 수 있다.

배종찬 인사이드K소장은 "추미에-윤석열 대결 구도가 차기 대권주자 지형을 바꿔놓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보수층 유권자가 윤 총장을 현 정권의 대항마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이형석,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 예산 신규 반영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 국회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심사 전체 회의에서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 추진을 위한 예산 20억원이 신규 반영되었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전국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광주광역시에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어 광주 시민들이 겪고 있는 각종 불편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을 위한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지만, 이 의원이 그동안 광주시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면서 면허시험장 시설계획비 20억원이 내년 예산안에 추가 반영됐다.

이 의원은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 예산이 행안위에서는 신규 반영되었지만, 마지막 관문인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가 남았다"면서 "예산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원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지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은 10일 "백신 국산화 추진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백신 품질확보 및 신속한 제품화 기술지원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 근거와 센터 운영 및 재정지원 근거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다.

김 의원은 "백신센터가 구축이 되면, 백신 자급률이 높아져 면역력이 약한 영아, 노인 등 취약계층 등의 국민보건 안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

로 기대하며, "시급한 백신 개발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미편성 되어있는 센터 기본설비 구축, 임상시험 검체분석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 등을 위해 예산이 편성이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된 내용은 담배갑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가리는 행위, 또는 물품의 제공·판매를 못하도록 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정세균 "통합·포용의 바이든, 시사점 크다"

총리 취임 300일 회견...시대정신 언급하며 대권 행보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로 끝난 미국 대선 후 "시대정신은 통합과 실용"이라고 말하며 주목된다. 정 총리가 '바이든 시대정신'을 언급한 것 자체가 대권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시사점이 아니냐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정 총리는 10일 세종 총리관에서 연 취임 300일 간담회에서 자신이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데 대해 "다른 생각보다는 현재 제게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 총리는 '대권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 것 아니

냐'는 거듭된 질문에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돼야 다른 생각을 해볼 여유도 있을 텐데...지금까지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일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대신 정 총리는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대권을 거머쥘 수 있었던 이유를 입에 올렸다. 정 총리는 "미국 국민들이 바이든 당선인을 선택한 시대정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바로 통합과 포용이 아닌가 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국민들은 분열이나 불안정, 대결과 반목을 물리치고 치유와 통합, 실용과 포용의 길을 제시한 바이든 당선

인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했고 그게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또 "바이든 당선인은 품격 있는 정치인이고, 안정감과 있고 경륜이 풍부하고 또 포용의 정치를 펼칠 수 있는 분"이라며 "그런 부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도 매우 클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가 분석한 '바이든 시대정신'과 정 총리가 그동안 거론해온 정치적 지향점 사이에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바이든 당선인을 통한 '정세균 강점 알리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총리는 평소 통합·실용의 리더십을 강조했고, 총리 취임과 함께 '통합 총리', '경제 총리'가 되었다고 선언한 바 있다. 신사적인 의정활동을 한 의원에게 주는 '백봉신사상'을 15차례 받기도 했다. 정 총리는 6선 의원이자 국회의장 출신이고, 바이든 당선인 역시 6선 상원의원이자 부통령으로서 상원의장을 겸했다는 공통점도 있다.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매매물건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리조트 매매




소재지: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 토 지 : 22784㎡(6892평)
- 건 축 물 : 4290㎡(1298평) 지상5층
- 총객실수 : 55세대
- 부대시설 : 세미나실, 카페, 매점, 바베큐장
- 매 매 가 : 75억

광주 · 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